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
전통방식 그대로 (첨가물 0% 수작업 100%)
제주고소리술 오메기맑은술
제주술익는집 | 역사적가치가 크고 술맛이 좋다하여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SINCE 1989 창간 31주년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173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0년 8월 5일 수요일(음력 6월 16일)

역대급 장마 영향 밥상물가 '비상'

호남지방통계청 7월 물가동향
상추 62.5%·시금치 39.8% ↑
채소값 급등… 서민가계 부담
향후 태풍·코로나 8월 변수로

올해 6월부터 이어졌던 역대급 장마로 인해 채소값이 급등하면서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의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4(2015년=100)로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모두 0.1% 상승했다.

지난해 12개월 동안 1%대를 넘지 않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월 1%대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되면서 4월에는 -0.2%, 5월 -0.8%, 6월 -0.3%로 낮아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가 상승을 이끈 품목은 신선식품이다. 제주지역 신선식품지수는 114.98로 전월과 비교해 0.7% 올랐으나,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했다.

특히 신선채소의 경우 가격이 전월 대비 8.5%,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하면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추 가격이 전월 대비 62.5% 오른 것을 비롯해 ▷시금치(39.8%) ▷깻잎(36.1%) ▷풋고추(16.1%) ▷파(14.3%) ▷호박(14.2%) ▷배추(7.2%) 등이 올랐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커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으나, 전월과 비교하면 0.4% 하락했다.

채소값을 비롯해 구내식당 식사비(2.7%), 자동차용 LPG(1.5%), 휘발유·경유(1.4%) 등의 가격은 올랐으나 전기료(-16.2%), 도시가스(-9.8%), 감자(-8%), 고등어(-5.4%), 조개(-5.7%), 수입 쇠고기(-4.5%) 등의 가격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 부문별 동향을 살펴보면 전월 대비 교통(1.9%), 오락·문화(1.1%), 음식·숙박(0.2%), 의류·신발(0.4%), 가정용품·가사서비스(0.4%) 등은 상승했으며, 주택·수도·전기·연료(-2.3%), 식료품·비주류음료(-0.2%) 등은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역대급 장마 탓에 채소 출하가 감소했고, 작황이 좋아 가격이 낮았던 지난해 7월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채소 가격이 상승했다"며 "8월 소비자물가는 장마·태풍 등 기후 여건 및 향후 코로나19 전개 양상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8월 폭염속 제주국제공항 폭염이 이어진 4일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는 뜨겁게 달궈진 지열의 영향으로 비행기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코로나19에도 수능 "예정대로"

12월 3일 실시… 2015 개정 교육과정 첫 적용

EBS 교재와 70%수준 연계
확진자는 병원 등지서 응시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서
수능 일주일전 고3 원격수업

코로나19 사태에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5일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수능은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어 영역은 ▷화법과 작문 ▷언어(언어와 매체 과목 중 언어 부문) ▷독서 ▷문학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수학 가형 출제범위는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이며, 수학 나형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다. 영어 영역은 출제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뤄지며, 이중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한 수험생만 응시할 수 있다.

이번 수능에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는 전년과 같이 70%(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수준을 유지한다. 또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했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도 유지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9월 3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이며,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23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 또는 온라인 제공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시험실당 수험생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제한하고, 교실 내 모든 책상에 칸막이가 설치된다. 입실 과정에서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본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는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는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른다.

이 밖에도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2380억원 융자 지원

농지 5000㎡·어선 1.5t 미만… 최대 1500만원 상향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융자 규모는 2388억원이다. 이는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5000억원 가운데 상반기 신규 추천, 상환기간 연장 규모 등을 포함한 융자 지원액 261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 1억원, 생산자단체 3억원이다. 상환기간 및 융자 조건의 경우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금리는 0.7%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농어가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당초 농지 1000㎡ 미만 및 어선 1t 미만에서 5000㎡와 1.5t 미만 등으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액도 최대 1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한 경기 침체 등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융자 상환이 어려운 농어가가 늘어남에 따라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상자는 0.7%의 저금리로 상환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연장은 대출받은 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지하용출수 냉난방시스템 에너지 절약 효과 '톡톡'

지하 용출수를 이용한 냉난방시스템이 시설과수 재배농가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지하 용출수 이용 냉난방시스템이 기존 유류 냉난방시스템과 비교해 88%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 및 난방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지하 용출수 이용 냉난방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제주도는 시설과수 재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화산섬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지하용출수 이용 냉난방시스템을 2019년 1개소, 2020년 1개소 등 2개소에 보급했다.

지하 용출수는 지층 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지표와 연결되는 지층이나 암석의 틈을 통해 솟아나오는 물로, 도내 900곳 이상 분포하며 연중 15~17℃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